

2018년 11월 2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 힘입어 급등 파월,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정상 수준”

파월 의장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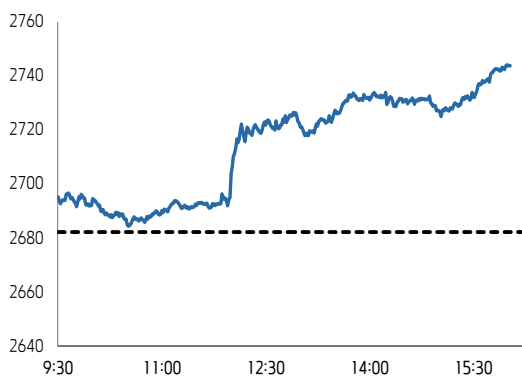
미 증시는 언론이 트럼프가 미-중 무역분쟁 휴전 방안을 찾고 있다는 보도에 힘입어 상승 출발. 더불어 아마존(+6.09%)이 추수감사절 연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한 점도 우호적인 영향. 여기에 파월 연준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언급하고, 주식시장에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자 상승폭이 더욱 확대(다우 +2.50%, 나스닥 +2.95%, S&P500 +2.30%, 러셀 2000 +2.51%)

미 증시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 급등. 파월 연준의장은 “금리 수준은 중립금리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라고 주장하며 지난 10 월 3 일 “중립 금리까지는 아직 멀었다” 라는 언급에서 수정. 최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현재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가깝다” 라고 주장했었다는 점을 감안 미 연준이 비둘기파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 이 발언 이후 CME 는 FEDWatch 를 통해 2019 년 3 월 추가 금리인상 확률을 기존의 44.1%에서 41.8%로 하향 조정

한편,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언급. “주식시장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장기 수준에서 정상 수준이며 과도한 상승은 보지 못했다” 라고 주장. 더불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경기둔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 과거 버냉키와 옐런 의장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의 정상 수준’을 언급하며 안정을 찾게 했던 행동과 같은 행보를 보인 것으로 추정.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2% 넘게 급등하며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임.

더불어 “미리 설정된 정책 경로는 없으나, 고용은 완전고용에 가깝고 물가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하다” 라고 언급. 다만, “부채가 많은 기업의 위험도와 상업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라고 주장해 이날 발표된 연준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 부채의 숨어있는 위험’을 경고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08.22	+0.42	홍콩항셱		26,682.56	+1.33
KOSDAQ		700.12	-0.08	영국		7,004.52	-0.18
DOW		25,366.43	+2.50	독일		11,298.88	-0.09
NASDAQ		7,291.59	+2.95	프랑스		4,983.24	+0.00
S&P 500		2,743.78	+2.30	스페인		9,102.70	+0.19
상하이종합		2,601.74	+1.05	그리스		603.11	-0.19
일본		22,177.02	+1.02	이탈리아		19,115.16	-0.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소프트웨어, 반도체 업종 강세

아마존(+6.09%)은 추수감사절과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했다. 로스 스토어(+4.47%), TJX(+5.05%) 등도 동반 상승했다.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10.27%)는 양호한 실적과 함께 비록 가이던스는 낮지만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매출이 급증하며 2020년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급등 했다. 어도비시스템즈(+7.30%), 서비스 나우(+7.32%), MS(+3.71%) 등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동반 상승 했다.

애플(+3.85%)은 아이폰XS 등을 구매시 과거 아이폰을 이용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던 크레딧을 늘리는 등 매출 확대 정책이 향후 고객들의 교체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상승 했다. 마이크로소프트(+4.62%), NVIDIA(+4.12%)를 비롯해 AMAT(+3.08%), 램리서치(+4.77%) 등 반도체 관련주는 중국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확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아마존과 세일즈 포스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 사업부 매출이 급증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JP모건(+1.11%), BOA(+2.49%)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44%	대형 가치주 ETF	+1.51%
에너지섹터 ETF	+1.48%	중형 가치주 ETF	+1.35%
소매업체 ETF	+1.64%	소형 가치주 ETF	+1.89%
금융섹터 ETF	+1.92%	배당주 ETF	+0.79%
기술섹터 ETF	+3.50%	변동성 ETF	-2.96%
소셜 미디어업체 ETF	+2.26%	대형 성장주 ETF	+2.97%
인터넷업체 ETF	+4.21%	중형 성장주 ETF	+2.85%
리츠업체 ETF	+0.81%	소형 성장주 ETF	+3.09%
주택건설업체 ETF	+2.47%	신흥국 고배당 ETF	+2.22%
바이오섹터 ETF	+2.71%	신흥국 저변동성 ETF	+1.76%
헬스케어 ETF	+2.41%	하이일드 ETF	+0.75%
곡물 ETF	+0.94%	물가연동채 ETF	+0.12%
반도체 ETF	+2.65%	Long/short ETF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4.76	+1.74%	+1.36%	-1.95%
소재	337.80	+1.47%	+1.14%	+4.16%
산업재	601.83	+2.41%	+3.45%	+3.28%
경기소비재	851.37	+3.23%	+6.74%	+4.00%
필수소비재	571.36	+0.98%	+1.44%	-0.04%
헬스케어	1,081.82	+2.46%	+4.04%	+5.57%
금융	447.82	+1.82%	+3.14%	+4.21%
IT	1,188.71	+3.44%	+5.76%	+0.12%
커뮤니케이션	148.68	+2.12%	+4.46%	+0.61%
유틸리티	276.87	-0.12%	-0.08%	+0.48%
부동산	206.65	+0.87%	+1.17%	+2.7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긍정적인 하루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2.15% MSCI 신흥 지수도 2.39%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666 계약)에 힘입어 3.45pt 상승한 277.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1.8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파월 연준의장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정당하다” 라는 발언과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와 가깝다” 라는 발언에 힘입어 급등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월 의장 발언 이후 달러화가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인 점은 외국인 순매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감안 수급 안정 기대된다.

한편, 미 증시에서 그동안 변동성이 컸던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한 점도 우호적이다.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지난 한달 동안 미-중 무역분쟁과 매파적인 연준 등을 빌미로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에 대해 매수세를 높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경향은 한국 증시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관련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미 언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분쟁 휴전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보도한 점도 긍정적이다. 현재 시장참여자들은 12 월 1 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존에 부과된 관세는 유지한 가운데 추가적인 상품에 대한 관세발효를 연기하는 정도에서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관련 이슈로 낙폭이 컸던 한국 증시에는 우호적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둔화 지속

미국 3 분기 GDP 성장률(QOQ) 수정치는 3.5%로 발표되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된 결과다. 다만 세부항목은 수정된 부분이 많았다. 소비지출이 하향 조정(4.0%→3.6%) 되었으나 기업투자(0.8%→2.5%), 기업 재고(2.07%→2.27%)는 상향 조정 되었다.

미국 10 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59.7 만건) 보다 감소한 54.4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신규 주택재고는 전월(7.1 개월) 보다 증가한 7.4 개월로 2011 년 이후 최고치를 지속했다.

리치몬드 연은 지수는 전월(15) 보다 둔화된 14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 수주(20→17), 고용지수(19→11)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11 월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지수인 SSCI 지수는 전월(84.4) 보다 하락한 82.7 로 발표되며 여전히 기준선(100.0)을 하회했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음을 반증 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50 달러 위협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카슈끄지 살해에 대해 사우디 왕세자가 연관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라고 발표한 여파로 하락 했다. 이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미 상원에 카슈끄지 살해 관련 미 행정부의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관련 발언을 했으며, 이는 사우디 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EIA 는 지난주 원유재고가 지난주(490 만 배럴) 발표보다 감소한 전주 대비 36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유가는 장초반 관련 소식에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으나 결국 장 후반 폼페이오 발언 여파로 국제유가는 2% 넘게 하락하며 50 달러를 위협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둔화 및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여파로 여타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월 연준의장은 “중립금리에 다가왔다” 라고 주장했다. CME 는 FedWatch 를 통해 2019 년 금리인상이 1 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달러 약세를 불러온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파운드화는 BOE 가 ‘노딜 브렉시트 영향 보고서’를 통해 만약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파운드화가 25%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관련 소식은 시장에 영향이 제한되었다.

국채금리는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는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 라고 주장하자 하락 했다. 그러나 주가지수가 급등하자 장기물은 상승 전환 했다. 한편,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은 2.55 배로 지난 12 개월 평균인 2.51 배보다 강했던 점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 및 달러 약세 영향을 받아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5%, 철근은 1.40%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0.29	-2.46	-5.88	Dollar Index	96.843	-0.54	+0.14
브렌트유	58.76	-2.41	-7.44	EUR/USD	1.1368	+0.70	-0.14
금	1,229.80	+0.81	+0.23	USD/JPY	113.63	-0.14	+0.50
은	14.455	+1.65	+0.46	GBP/USD	1.2828	+0.64	+0.39
알루미늄	1,932.00	+0.08	-1.10	USD/CHF	0.9936	-0.52	-0.13
전기동	6,200.00	+1.28	-0.56	AUD/USD	0.7307	+1.13	+0.61
아연	2,452.00	+0.70	-4.52	USD/CAD	1.3273	-0.16	+0.32
옥수수	373.25	+1.29	+0.27	USD/BRL	3.8541	-0.58	+1.49
밀	511.50	+0.99	+0.59	USD/CNH	6.9389	-0.19	+0.21
대두	890.50	+1.71	+1.08	USD/KRW	1126.45	-0.26	-0.46
커피	113.90	+0.53	-0.87	USD/KRW NDF 1M	1121.80	-0.75	-0.5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061	+0.36	-0.19	스페인	1.540	-1.10	-9.20
한국	2.152	+0.10	-5.80	포르투갈	1.865	-1.20	-9.30
일본	0.100	+0.80	+0.50	그리스	4.320	-2.70	-31.30
독일	0.349	-0.10	-2.70	이탈리아	3.254	-3.30	-21.40